

[(사)한국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 회원대회 특집]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인터뷰

김은진 기자 | 승인 2025.08.19 15:07

“기후변화 인한 불확실성 선제적 대비한다”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 수위 설정·운용 계획
농촌 인구감소·청년농업인 정착 문제 지원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면서 배수로와 저수지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도 쌀 재배에 있어 중요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데 남다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하는데 앞서 최현수 본부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이상기후 대책과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쌀전업농충북도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제10회 한국쌀전업농충청북도 회원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쌀 산업은 국민의 식생활과 국가 식량안보의 중추이자,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충북의 쌀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집중호우와 이상기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쌀 생산과 공급을 위해 힘써 주고계신 회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북지역본부와 도내 7개 지사는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 수위 설정 및 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

적인 홍수기전 배수장을 포함한 주요 수리시설 전반에 대해 결함 여부와 작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했다.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하루 강수량이 250mm가 넘는 큰 호우가 있었지만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농경지 침수와 주요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재난대응 단계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40개의 배수장을 가동하는 등 총 5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책은.

반복되는 폭우와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충북지역본부는 무엇보다도 농업기반 시설의 안전성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 저수지의 내진 보강, 사전 방류시설 확충, 실시간 계측 시스템 확대 등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신념으로 시설보수와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의 확대를 위해 자동수위계측기와 CCTV를 활용한 ICT기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관수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지와 양·배수장을 연계한 효율적 물순환 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다.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올해 중점적 추진 사업이 있다면.

충북지역본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농업과 농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촌 인구감소와 청년농업인 정착 문제해결을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관련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

또한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괴산군 청안면에 문당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신규로 설계하고 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미래스마트농업 트렌드에 맞춘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맞춤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한 농촌 독거노인대상 '낙상방지 안전바 무상설치'와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IT 서포터즈' 활동 등을 전개해 지역상생과 ESG경영을 실천하겠다.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원분들께 한 말씀.

충북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땀이 오늘의 충북 농업을 지탱하고 있으며, 주곡인 쌀은 국가 식량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저희 공사도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린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진 기자